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물

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물은 ‘물’이라고 생각합니다.

물은 무색 무취에 특별하진 않지만 여러가지 물질을 녹일 수 있어 생명체에겐 꼭 필요합니다.

물의 이런 특성과 같이 저 또한 특별하고 튀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직에 속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녹아들 수 있어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

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물은 ‘물’이라고 생각합니다.

1. **구현하고 싶은 서비스가 있으시다면**간단하게**작성해 주세요.**

**- 무인창업 사이트**

**(무인 창업에 필요한 기기 정보 & 업종 별 투자 금액 & 투자 가이드 제공 사이트)**

**2. 프론트엔드에 지원하게 된 이유**

**제가 짠 코드들이 시각적으로 보여져서 너무 즐거웠고 지인들에게 자랑을 할 때에 어떤 부분을 내가 구현했는 지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.**

3. 팀원들이 너무 강경한 의견을 가지고 주장한다면 나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?

- 의견 충돌이 있을 시에는 누가 제시한 의견인지가 아닌 어떤 의견이 합당한 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이에 각자 자신의 의견의 장단점 & 상대의 의견의 장단점을 글로 작성하여 제출 받은 후 조직의 목표 달성을 1순위로 평가 기준을 세워 의견을 조율할 것 입니다.

**4. 디버그를 할 때에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지?**

**- 주로 스택오버플로우에서 정보를 얻으며 가급적 공식 문서를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.**

**5.**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
- 면접에서 제 모든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. 멋쟁이사자처럼에 합격하게 된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여 열정적인 아기사자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함